

WEB CONTENTS



2024년 05월 05일 02시 56분



여수시

목차

목차	2
여수여행후기	3



동행. 관광해설사 - 강 영 선 선생님.

살의 여백을 만들기 위한~
수년째 함께하는 다섯청년(?)들의 여행.
부산을 시작으로 목포 거쳐 광주, 담양 돌아 여수!

총무공 이순신의 얼이 깃든 이 곳 여수.
전라좌수영 "통제이공수군대집비"와 "타루비"는
압도적인 위용과 절절함이 전율케 한다.

소노캄 호텔은 꼭 다시와서 묵었다 가리다 찜해 본다.

오동도는 참! 이쁘고 사랑스럽다. 유난히 연인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.
포토존이 많아 추억쌓기엔 이만한 곳이 없을게야~

총무공의 ~ 백성을 섬기고 사랑함이 나타나는 "둔전"의 예는
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가슴에 새겨야 할 최고의 덕목일게야.

남자라면 군대얘기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빼면 별 그닥일텐데
고맙게도 군대시절 추억을 강제로 소환시켜주는 평화테마촌.
M60 주특기셨던 만형님은 이를 가셨다.

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처인 향일암!
입구부터 범상치않은 기운에 사로잡혔고,
삼성각에 삼배를 올리며
"함께 온 다섯청년(?)들의 건승과 무탈"을 간절히 합장한다.

그 놈에 "오빠~ 막걸리 한 잔~"
싱그런 갯 김치와 굴전으로 목을 축이고
안식구들에게 미안함을 사히려
"갯김치" 택배로 위안한다.

생각보다 높더라~
해상케이블카로 보는 여수의 뷰~~
해설사님 말씀대로
석양빛과 밤야경을 반드시 봐야겠다.
아~ 아름다워라~ 여수~~

점심은 "백금식당" - 서대회무침과 계장... 역시 남도어~~ 감동!
저녁엔 "돌계장전문 대 경" - 만찬은 역시 현지인 맛집. 어마어마한 비주얼~~ 어찌할것누!

오롯이 함께 한..
감사한 강 영 선 해설사님!
마스크 쓴채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
목 상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~
늘~ 활기차게.. 여수를 지켜 주소서.
후일 뵈때는 거하게 대접해 올리리다~~
감사합니다.. 덕분입니다..



여수관광문화(<http://tour.yeosu.go.kr>)



목록

실명인증글쓰기

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.

댓글등록

COPYRIGHT (C) BY YEOSUCITY. ALL RIGHT RESERVED.

YEOSU CITY
Web Contents

